

2018년 5월 30일

emerics@kiep.go.kr

남아공, 실업률 15년 내 최고치



남아공 실업률이 26.7%를 기록해 1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,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보다 훨씬 높은 실정임.

□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실업률이 1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음.

- 지난 5월 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, 남아공의 2018년 1분기 실업률은 26.7%를 기록함.
- 남아공의 실업률은 1994년 22%, 2014년 25%, 2018년 현재 26.7%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.
 - 2018년 1분기 고용(employment)은 20만 6천명 증가하고 실업(unemployment)도 10만 명이 증가함에 따라, 결과적으로 노동 참여율(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)은 58.8%에서 59.3%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.
 - 공식(informal) 부문에서 11만 1천개, 비공식 부문(informal) 9만 3천개, 개인 가정(private household)에서 5천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, 농업 부문(agricultural)에서는 3천 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함.
 - 또한, '취업 의욕을 상실한 구직자(discouraged work-seekers)' 수는 24만 9천명 증가한 반면, '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'는 40만 4천명 감소함.
- 남아공 통계청에 따르면, 남아공 근로자(employee)의 75%가 미숙련자(low-skilled)이거나 반숙련자(semi-skilled)인 것으로 나타남.
- 실업률 증가의 이유는 복잡하지만, 주로 남아공 정부의 엄격한 규제, 비용 상승,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 등인 것으로 파악됨.

□ 특히, 남아공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을 상회하고 있음.

- 남아공의 15세에서 24세 청년의 실업률은 52.4%를 기록해, 전 분기 51.1% 보다 높아졌음.
 - 즉, 해당 연령대의 청년 2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.
- 24세에서 35세 청년의 실업률도 35.4%에 이르며, 현재 남아공에서 교육, 훈련, 구직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약 300만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.
- 게릿 반 루옌(Gerrit van Rooyen) 경제 분석가는 “청년 실업 및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것,”이라고 지적하였음.
- 남아공의 퍼스트 내셔널 뱅크(First National Bank)의 제이슨 무스캣(Jason Muscat) 애널리스트는 “실업률이 완화될 조짐은 아직 없다”며, “올해 경제 성장률이 2% 가량으로 전망되는데 이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야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,”이라고 언급함.

□ 최근 시릴 라마포사(Cyril Ramaphosa) 대통령은 남아공 기업들에게 「청년 고용서비스(YES)」 계획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음.

- 청년 고용서비스(YES) 프로그램은 기업, 정부, 노동자 간의 협력의 산물로, 기업들이 100만 명 이상의 남아공 청년들에게 3년의 유급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.
-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의 사회 개발 및 경제 개발에 있어 가장 큰 도전과제가 높은 청년 실업률이라고 지적함.
 - 라마포사 대통령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남아공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.
 - 가난한 아이들이 대학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무료 고등교육이 남아공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라마포사 대통령은 첨언하였음.
- 한편, 청년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실업률을 낮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. **EMERiCs**

참고자료

Citizen, Youth unemployment main challenge to social development, says Ramaphosa, 2018. 05. 19
 Huffingtonpost, South Africa's Unemployment Figures Are A Ticking Time Bomb, 2018. 05. 17
 Citizen, Unemployment rate stuck at 26.7% in first quarter , 2018. 05. 15
 lol, 52% of South Africa's youth has no job, 2018. 05. 15

(자료정리: EMERiCs, 자료감수: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)